

임관영 · 강개훈 · 유금열氏 제4회 포천시 문화상 受賞者로 선정



임관영(문화예술부문)

제4회 포천시 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예술부문에 임관영(林寬榮)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 교문이 교육부문에 강개훈(姜介薰) 왕방초등학교 교사가 지역 사회개발부문에 유금열(柳金烈) 가산면 개발자문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임관영 고문(65)은 1997년11월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장으로 선



강개훈(교육부문)

임과 6년여간 재직하며 포천문학지를 창간하고 이를 6집까지 발간했으며, 포천사랑 시낭송회(6회)와 문학강연회(3회), 포천시 랑백일장(3회)을 개최하고 제1기 마을문예대학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

이 평가됐다. 영북, 일동, 포천, 선단 초등학교 등을 거쳐 현재 왕방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강개훈 교사(44)는 17여 년 동안 사물놀이 보급과 전통음악의 선도적 계승, 창의적인 학급경영, 올바른 인성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유금열(56) 가산면



유금열(지역사회개발부문)

개발자문위원장은 하천 및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앞장섰으며, 특히 1991년과 1992년 죽엽산, 불정산 산발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에 크게 기여하는 등, 평소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49

선비정신의 상징 매죽헌 성삼문



리효중 포천시사 대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의 아버지뿐이오.” “다시 말하라. 또 누가 있는가?” “내 아버지까지 말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숨기겠소?” “강희안도 역모에 참여하였느냐?”

그러자 성삼문이 웃으며 답하였다. “알지 못하오. 나라가 쓸만한 선비들을 모조리 죽였으니 그만 살려두고 쓰시오. 그는 실로 여진 선비요.” 이로써 강희안은 죄를 면하게 되었다.

세조가 다시 물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가?” 성삼문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는 것이오. 천하에 여진 임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소. 내 마음은 나라가 다 아는데 나리는 무엇이 이상하여 묻는 것이오? 나리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간 사람이고, 이 몸이 남의 신하가 되어 군주가 폐위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이러는 것이오.”

세조가 분기탱천하여 발을 구르며 말하였다. “너는 내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기만하 있었다. 그 후로 줄곧 나에게 의지하다가 지금 와서 배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처음에 나라를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형제가 그러하였기 때문이오. 나는 그때 말할 수 없음을 알고 목숨을 헛되어 버릴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오늘을 기다리며 대사를 도모했을 뿐이오.” “너는 신이라 하지 않고 과인을 나리라 부르는데 너는 과인을 너희가 임금이 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냐?” “나의 임금이 따로 계시는데 나리가 여진 나를 신이라 할 수 있소? 나는 나리의 녹을 먹는 자 없소. 내 집의 가산을 몰수하여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오.”

세조가 크게 노하여 무사를 시켜 달군 쇠로 그의 다리를 지지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팔이 끊어져도 성삼문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세조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벌이 참으로 참혹하구려.”

성삼문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자 세조는 불에 달군 쇠로 그의 남은 팔 하나를 끊어 버리게 했다. 성삼문은 죽음을 이르러 좌우에 서 있는 옛 동료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진 임금을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라. 나는 돌아가 옛 임금을 땅 밑에서 보리라.” 수레에 실릴 때 그는 시 한 수를 지었다.

올리는 북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마니만 황천길엔 주막 한 채 없으리니 오늘밤은 뒤에서 재워줄꼬?

그때 대어섯 살 된 성삼문의 딸이 그가 타고 있던 수레를 쫓아오며 울었다. 성삼문이 뒤돌아보며 어린 딸에게 말했다. “사내자식은 다 죽을 것이로되, 너는 딸이어서 다행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그의 아버지 성삼과 세남동생, 그리고 다섯 아들이 모두 처형당했다. 그가 죽은 뒤 그 집을 몰수하니 세조가 즉위한 이래 나라에서 받았던 녹봉을 따르던 방에 쌓아두고, 일일이 날짜까지 적어 놓았다. 집에는 남은 것이 없었고, 인방에는 짚으로 만든 자리가 깔려 있을 뿐이었다.

성삼문이 일찍이 자신의 절개를 비유한 시조 한 수를 지었다. 이름이 죽어가서 무엇이 필요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승(洛洛長松) 되었다가 백설(白雪)이 만경군(滿乾坤)할 제 독이청정(獨也靑靑)하리라.

성삼문(成三問) 1418년(태종18)~1456년(세조20).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아버지는 도총관(都總管) 승(勝)이다. 1438년(세종20)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고, 1447년 문과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집현전 학사로 뽑혀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면서 수찬(修撰)·직집현전(直集賢殿)으로 승진하였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개 등과 함께 도왔다. 1453년(단종1)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자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을 내렸는데 이가 성삼문은 사상을 올렸다.

1455년 예부승지(禮房承旨)로 있을 때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선위(禪位)를 강요했다. 그때 성삼문이 국새(國璽)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다.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후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때 동생 삼문(三問)·삼고(三高)·삼성(三省)과 아들 맹첨(孟瞻)·맹년(孟年)·맹중(孟忠) 및 갓난아이까지 모두 죽음을 당하여 홀신(寡身)이 됐다.

1691년(숙종17)에 신원(伸寃)되고, 1758년(영조34) 이포판서에 추증되었다. 그의 묘는 서울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있으나 그의 시체 일부만이 묻혔다는 묘가 충남 은진에도 있다.

저서로 『매죽헌집』이 있으며 시호는 충문이다.

‘정신세계 정화시키는 文學’

포천文協, 포천문학 출판기념회 · 시화전 · 시낭송회



(사)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는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제8집 출판 기념회와 시낭송회 및 시화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욱 지부장은 포천문학 제8집 출판기념회 인사말을 통해 “정신세계를 정화시키는 것은 문학

이라고 생각한다”며 “포천문학 8집에 탄생하기까지 애쓰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도움을 주신 박운국 포천시장님, 이강원 포천시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포천문인협회 회원님들의 고통이자 희열의 결정체인 소중한 작품 하나하나가 포천문학 제8집이라는 아름다운 문집에 담겨 나오게 된 것을 1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문인협회가 향토라는 특수성과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잘 조화시켜 오셨기에 애향포천이라는 말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포천문학 제8집 출판기념회와 시낭송회 및 시화전 개막식을 가졌다.

초대시

아름다운 나의나라 그대여!



초대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나의 사랑 그대여! 정이꽃보다 향기롭고 하얀눈꽃보다 뽀얀백의 천사! 나의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곱고 애련한지오? 창영하고 드물른기울아늘은 그대의 싱그름과 이슬하마음 같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포근한기울바람은 상큼한 그대의 입김 같아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사랑 그대여! 언제나 기울은 그대의 그윽한 향기로 온산천에 그리움으로 되돌아 있어 나도모르게 추억어린 아늑한 그리운 시간 속으로 축축히 젖어두고 마는군요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2)

정려(旌閭)를 사양한 효자 조항일(趙恒一)

부친께서 병환을 얻어 위독해 지시자 손가락을 잘라 비장한 결의로 혈서(血書)를 써서 천지신명(天地神明)께 빌었다. 아들 자신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부친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원이 담긴 기도였다.

정성들여 기원을 드린 끝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 현몽한 노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갔다 한다.

“너의 효성(孝誠)이 매우 지극하구나. 그 지극정성(至極精誠)에 감동하여 너의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노라” 하늘의 감응(感應)으로 2년의

수명이 연장된 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모셨으나 2년 뒤 병환이 재발되어 또다시 효자 조항일에게 걱정이 찾아왔다.

이에 굴복할 효자 조항일이 아니었다. 효자 조항일은 세 차례나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혈 하였다.

또, 여덟 차례나 하늘에 기원을 드리는 정성을 다 하였다. 그리하여 6년간의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받는 하늘의 감응하심을 받았다고도 칭송의 소리가 고을 안 에 들쭉였다.

이에 감동에서는 효행을 기려 효자정려(孝子旌閭)를 하사하였으나 조항일 효자는 끝내 정려문

을 극구 사양하였다.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어찌 상을 받고 정려를 하사 받겠는가? 이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라고 정려 하사를 사양한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정려를 사양한 조항일 효자는 즉시, 부친의 묘소인 양주 선영의 묘하를 이사를 하여 묘소를 보살피는 효행을 계속하였다 한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효자 조항일은 스승 용주 조경 선생의 상을 당하여서도 3년간 심상(心喪)으로 추모함을 잊지 않았다니 다름이 아닌 ‘교야자 부모(教我者父母)나를 가르치신

스승도 부모와 가이 섬기는 도리’를 다한 훌륭한 선비정신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효자 조항일은 조선조 숙종 때 사람으로 포천 화산(火山; 지금의 가산면 가산리)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는 용주 조경(龍洲 趙綱) 선생께 배웠다.

성장해서는 독학으로 성리학(性理學)을 배우고 깨우친 선비였으며 학자였다. 자(字)는 여중(汝中), 본관은 한양이다. 그후 나라에서는 효행을 높이 평가하여 승려참봉(僧祿參奉)을 제수 받았으며 80이 넘어서는 수직(壽職; 80세 이상의 관원이 받는 벼슬)으로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는 장수와 영달(榮達)의 영화를 누리었다 한다. 요즈음 효(孝)사상이 자취를 감추려는 세상이나 내고향 포천에는 조상님들의 교훈과 행적을 이어 받아 지금도 효자 효녀들이 많다는 사실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포천효행록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賞菊(상국)



리효중 포천시사 대표

循環日月至重陽(순환일월지중양)

세월이 흘러 중양을 맞이하니
 疊疊黃花秀樣芳(첩첩황화수양방)
 국화의 빼어난 모습이 곱구나
 晚節幽貞誇後圃(만절유정과후포)
 만절유정은 후원에서 자랑하고
 美華精潔耀前場(미화정결요전장)
 미화정결한 것은 앞마당에서 빛나고 있네
 詩樓上興濃境韻(시루상흥농경운)
 시루에서는 경운이 무르녹고
 庭苑中浮動談香(정원중부동담향)
 정원에서는 담향이 떠오르나
 雅趣超然言外在(아취초연언외재)
 아취는 초월하여 언어에 있으며
 淸純姿態帶妍光(청순자태대연광)
 청순한 모양에 고운빛을 띠었구나